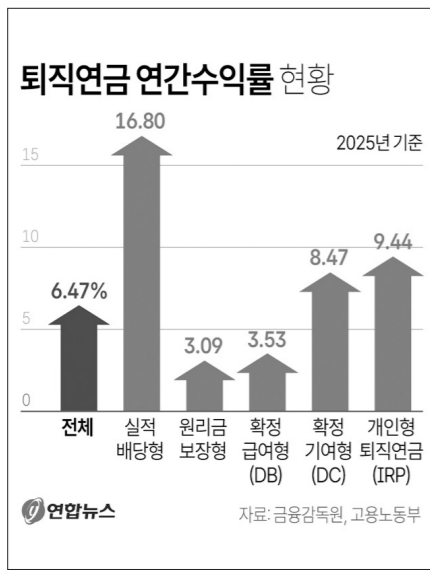


퇴직연금 500조...실적배당형 수익률, 원리금형의 5배



작년 6.47% 수익 역대최고 DC·IRP, ETF로 '머니무브' 증권사 수익률 가장 높아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돌파했다. 수익률도 역대 최고치인 6.5%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의 절반은 2%대 수익률에 그치는 등 운용 방법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발표

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6.1% 증가했다.

2020년 255조5000억원이던 적립금 규모는 2022년(335조9000억원) 처음 300조원을 넘어섰고, 2024년(431조7000억원) 400조원을 돌파한 지 1년 만에 500조원을 넘어섰다.

연간수익률은 6.47%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증시 호황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인 국민연금(19.9%)과 글로벌 연기금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운용 방법별로는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16.80%로 원리금보장형(3.09%)의 5배에 달했다.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확정급여형(DB) 수익률은 3.53%에 그쳤지만, 확정급여형(DC) 8.47%, 개인형퇴직연금(IRP) 9.44%로 더 높았다.

상위 10% (수익률 19.5%)는 실적배당형 투자 비중이 적립금의 84%로 운용수의 중심인 반면, 하위 10% (수익률 0.5%)는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74%로 납입금액에만 의존하는 구조였다. 가입자 절반의 수익률은 2%대로 몰가 상승률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다.

상품유형별로 티크데이트펀드(TDF)는

13.7%를 기록했지만, 다폴트옵션은 예금 등으로만 운영되는 안정형 비중(85.4%)이 높은 영향에 3.7%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증권사가 9.79%로 가장 높았고, 은행(5.70%)·생명보험(4.53%), 손해보험(3.81%)을 크게 웃돌았다.

DC·IRP 기준으로는 은행·보험은 가입자 80%가 평균(6.47%)에 미치지 못했지만, 증권은 42.5%가 수익률 10% 이상으로 성과 차이가 뚜렷했다.

제도별 적립금 규모는 DC가 141조 6000억원(28.2%), IRP가 130조9000억원(26.1%)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확정급여형(DB)은 228조9000억원

(45.7%)으로 비중이 축소됐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금액은 48조 7000억원으로 3년 연속 매년 10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실적배당형의 약 40% 수준까지 확대됐다.

적립금은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에 쏠려 있었다. 원리금보장형이 378조1000억원(75.4%)을 차지했지만, 실적배당형은 123조3000억원(24.6%) 수준이었다.

현재 통합연금포털에서 현재상황 진단과 투자상품·사업자별 수수료 비교할 수 있으며, TDF나 다폴트옵션 등 퇴직연금 전용상품도 활용할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 여성일자리 박람회 '복직'

전남도가 올해 첫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여수에서 열고 현장 채용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전남도는 20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여성의 내일(JOB), 함께하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2026년 제1회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의 의장, 여성·고용 관련 기관 관계자, 구직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채용관과 취업준비관, 직업정보관, 특별관 등 70여개 부스가 운영됐다. 현장면접관에서는 여수와 광안지역 30개 기업이 참여해 사무직과 보건 의료직, 제조·생산 분야 등에서 근무할 인재를 79명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직업교육 훈련생과 특성화고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도 행사장을 찾아 취업 정보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가족친화 특별관도 새롭게 운영됐다. 전남도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지수'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이후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여수서 올해 첫 개최...30개 기업 현장 면접 가족친화 특별관·SI 취업 특강 운영 등 호응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0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특별관은 홍보존과 체험존, 상담존으로 구성됐으며 경력단절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과 가족친화인증 제도 안내, 기업 홍보, 체험 프로그램 등이 함께 운영됐다.

황기연 부지사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구직 행사를 넘어 여성과 기업, 지역의 미래가 연결되는 자리"라며 "여성 고용

변화와 일자리 전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등을 주제로 한 라이브 특강이 열려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황기연 부지사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구직 행사를 넘어 여성과 기업, 지역의 미래가 연결되는 자리"라며 "여성 고용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과 함께 여성 일자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다음달 25일 순천, 10월 30일 목포에서도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청년들 또 떠났다...1분기 20대 3600명 순유출

전남 4분기 순유입서 전환

올해 1분기에도 광주·전남 지역의 20대 3600명이 타 지역으로 나가며 순유출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호남지방데이터터치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 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총 3973명 순유출됐다. 특히 20대에서만 1547명이 빠져나가며 전체 순유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50대(588명), 30대(571명) 등 순이었다.

전남도 1498명이 순유출됐다. 그 중 20대(-2113명)와 10대(-993명) 유출 폭이 컸다. 지난해 4분기 2408명 순유입에서 다시 순유출로 전환했다.

지역 경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광주의 광공업생산지수는 132.9로 자동차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동 분기 대비 0.6%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은 12.7%.

답배는 32.8%, 전자·통신은 30.9% 각각 늘었다. 반면 금속기공(-35.2%)과 전기장비(-12.2%), 고무·플라스틱(-

26.8%)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5.6으로 예술·스포츠·여가(52.3%), 금융·보험(8.0%), 도소매(3.8%) 증가 등에 힘입어 3.3% 상승했다. 소매판매액수도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0.1% 늘어난 94.6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는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광주 건설수주액은 1961억원으로 건축공사 수주가 늘어 전년 동 분기 대비 3.9% 증가했다. 다만 공공 발주는 62.7% 감소했다.

수출은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광주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로 프로세스와 컨트롤러(62.3%), 승용차(14.0%) 등의 수출이 늘어 전년 동 분기 대비 17.5% 늘었다.

전남은 제조업 부진이 이어졌다. 광공업생산지수는 99.6으로 기타 운송장비 등의 생산이 줄어 전년 동 분기 대비 1.2% 감소하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024년 4분기 6.3% 증가를 마지막으로 2025년 1분기 -0.4%, 2분기 -2.1%, 3분기 -4.4%, 4분기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용 기자 djwody0316@gwangnam.co.kr

광주신용보증재단과 IBK기업은행은 20일 '광주시 소상공인 성공기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상공인 비즈니스 카드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신보와 기업은행은 1대 1 지원 간 매칭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핫라인을 운영해 보증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

광주신보-기업은행,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소상공인 비즈니스 카드보증 확대...협업체계 강화

획이다.

또 금융지원이 필요한 지역 소상공인을 공동 발굴하고 현장 중심 상담과 맞춤형 공동 금융지원 확대에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신보는 보증 지원을 맡고, 기업은행은 보증 연계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비즈니스 카드보증'은 소상공인이 운영자금 용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보증 상품이다. 기존 보증상품과 달리 최대 1000

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연회비 면제와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염규승 광주신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은행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관광공사는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대, 서영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한국폴리텍대 광주캠퍼스, 호남대 등과 '광주 관광 일자리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관광공사-지역 6개 대학

청년 취업·관광산업 인재 양성 맞춘

광주관광공사와 지역 6개 대학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관광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관광공사는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대, 서영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한국폴리텍대 광주캠퍼스, 호남대 등 6개 대학과 '광주 관광 일자리 협의체'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청년이 지역 관광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공사와 6개 대학은 관광 일자리 사업 공동 운영과 홍보, 취업 박람회 등 채용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추진한다. 또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관광·마이스 분야 인재 양성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0일 열린 '광주 관광 일자리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관광기업의 인력 수요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연결할 실질적 협력체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됐다.

공사는 협의체 1차 회의 후 현장 중심 사업을 잇따라 추진했다.

지난 6일 광주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광 일자리 상담소'를 운영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광주 관광 일자리 페스타 및 인턴십 매칭 데이'를 열었다. 이 중 매칭데이 행사에는 광주지역 관광기업과 청년 구직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통해 관광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직접 만남이 이뤄졌다.

그 결과 지역 관광기업 25개사와 청년 30명이 인턴십 매칭에 성공했다.

이 중 매칭데이 행사에는 광주지역 관광기업과 청년 구직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통해 관광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직접 만남이 이뤄졌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고용 '세대 역전'...청년 일자리 잃고, 노인은 늘었다

청년 4분기째 두자릿수 감소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보다 22만개 넘게 늘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층 일자리의 지속적 감소와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급증이라는 뚜렷한 세대 간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5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2112만3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1000개(1.1%) 증가했다.

표면상 수치는 긍정적이다. 전체 일자리는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증가폭도 직전 분기(13만9000개)보다 크게 확대됐다. 2025년 1분기에 불과 1만5000

개 증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연말로 갈수록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흐름이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의 성격과 수혜 계층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체 증가분 22만1000개 가운데 60대 이상에서만 24만6000개가 늘었다. 수치상으로 고령층 증가분이 전체 순증 폭을 초과한 것이다.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은 11만1000개나 감소했고, 40대도 3만7000개 줄었다.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 감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분기(-16만 8000개)부터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12만6000개 증가하며 전체 고용 회복을 사실상 주도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1000개)과 보건업(4만5000개)이 나란히 큰 폭으로 늘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돌봄 수요 확대가 구조적으로 이 분야의 일자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숙박·음식업도 4만개 증가했다.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만 3만7000개가 늘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만3000개), 협회·수리·개인 서비스업(3만개)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건설업은 8만8000개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전문직별 공사업에서만 6만6000개가 줄었고, 종합 건설업도 2만2000개 감소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지난해 1분기(-15만4000개)를 시작으로 4분기 내내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도 1만4000개 줄며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산업임에도 뒷걸음쳤다. 다만 반도체(3000개), 선박·보트 건조업(4000개), 자동차 부품 부품(4000개) 등

일부 업종은 증가해 업종 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섬유, 금속기공, 기계장비 등 전통 제조업에서는 감소가 두드러졌다.

외형적으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음을 보여주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관하기 어렵다. 고령 일자리 증가는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인구 구조적 필연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20대 이하가 주로 감소한 분야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자리 증가를 견인한 보건·복지 분야는 상당 부분 공공 재정 투입에 기반한 구조로, 민간 부문의 자생적 고용 회복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건설업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제조업과 자체 유통업까지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내년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황해운 기자 nabi@jdream.com